봉은사,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 박차

서울시 문화재 지정 추진
3월 31일 택전의식 이어
4월 9일 생전예수재 시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31일 열린 택전의식에서 주지 원명 스님이 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생전예수재 근본사찰인 서울 봉은사가 생전예수재의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에 나선다. 서울 봉은사는 3월 31일 생전예수재 택전의식을 봉행한데 이어 4월 9일 생전예수재를 시연했다.

이날 시연에는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작법학교장 법안 스님 집전으로 8시간에 걸쳐 봉행됐다. 의례의식은 명고·명전 10타를 시작으로 신중작법, 괘불·불패이운, 운수단, 사자단, 상단, 중단, 고사단, 마구단, 함합소, 회향봉송 순으로 불교전통이 그대로 재연됐다. 시연에 앞서 펼쳐진 택전의식에는 봉은사 스님들과 함께 대중 500여 명이 참여해 관심을 보였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특히 봉은사는 과거부터 생전예수재와 수륙재를 양일에 걸쳐 연이어 진행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역사를 토대로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무형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스님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안 된 것은 '연속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통해 불교 전통이 미래세대까지 전승되고 강남 한복판에서 전통문화가 여법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31일 택전의식에는 수륙재 무형문화재 지정에 기여한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불교민속학회장) 등 전문학자들이 참여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생전예수재는 단순한 불교의식을 넘어 옛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성찰의 계기였다. 친척과 친지 모두가 참여하기에 개인의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공덕의 의미도 지닌다. 또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퍼트리는 공동체 의식이기도 했다"며 의미를 평가했다. 홍 명예교수는 이어 "생전예수재 봉행 기록이 남아있는 봉은사에서의 생전예수재 문화재 지정은 사회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매년 수십만명의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찾는 봉은사에서 전통문화를 정기적으로 시연하는 것은 문화전승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전예수재는 불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를 미리 지내는 의식으로 '미리(豫) 닦는(修)' 재로 불린다. 우리나라 생전예수재는 시왕신앙이 활발했던 고려시대부터 시작돼 조선 중기에 성행했다. 현존하는 문헌 중 최초로 생전예수재가 기록된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경기도 광주 봉은사에서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많은 돈을 불단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같은 행사는 달이 다가도록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고 믿어 사방의 노파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다' 고 전하고 있다.

즉 현재 서울 봉은사가 한국불교문헌에 기록된 예수재의 최초 설행 도량인 것이다. 봉은사에는 1984년과 1990년에도 예수재와 수륙재를 함께 설행하기도 했다.

이에 봉은사는 서울시 중요무형문화재 추진과 함께 2017년 6월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해 지속적인 의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02)3218-4828

대중 함께하는 적멸보궁 참배공간 낙성

구례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 탑전 복원불사 회향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적멸보궁 참배공간을 마련하고 호남최대의 불교성지로 거듭난다.

화엄사는 4월 2일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4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 아래 탑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낙성한 탑전은 2014년 5월 공사를 시작해 4년 만에 완공한 전면 3칸 40평 규모의 다포계 전통한옥이다. 특히 석탑이 보이는 면은 전면유리로 만들어져 신도들이 석탑을 보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석탑은 문화재 이전에 삼보에 해당하는 신앙의 대상"이라며 "탑전의 낙성은 원래 신행공간이었던 모습을 복원, 많은 신도들이 발원하고 서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엄사는 탑전 낙성과 함께 신중탱화 봉안과 동종 불사를 진행하며, 4월 16일부터 1000일 기도를 봉행한다.

탑전에서 바라보는 기도 대상인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은 네 마리의 사자를 모퉁이에 기둥삼아 세워 놓은 탑이다. 사자들에 에워싸여 있는 중앙에 합장한 채 서있는 스님상은 연기조사의 어머니라고 전하며, 바로 앞 석등에서 탑을 향해 끓어 앉아 어머니에게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 연기조사의 지극한 효성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4사자석탑은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한국 이형석탑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탑전 복원에 대해 화엄사는 "탑전은 화엄사에서 가장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근래 들어 스님들의 수행공간이었으나 원래 사부대중의 신행공간으로 다시 조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 4사자삼층석탑의 하층기단 속 채움의 유실로 2개 모서리부분에 변형이 발생해 진행된 보수정비공사는 석탑 해체 후 문화재 발굴과 하층기단 주변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완공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종특별교구, 임관예정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

부교구장 남전 스님 "전법 임무 다하는 군승 되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4월 3일 부산 금련사에서 2018년 임관 군승 입대전 교육 회향식을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올해 임관 예정인 군승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3일까지 군법의 이해, 설법 점검, 불교의식 점검, 불교상담 방법론, 군 조직과 군종업무의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승들은 조계종 파송 스님으로서 정체성을 함양과 함께 군 장교로서 임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혔다. 회향식에서 항상 수행자임을 명심하고 인천(人天)의 사표(師表)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회향식에서 군종교구 부교구장 남전 스님은 "군승들은 군포교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군포교 현장에서 혼신을 다해 전법의 임무를 다하는 군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16 앉음과 누움. 坐臥。

○書云, 久坐傷肉, 久臥傷氣, 坐勿背日, 勿當風濕成勞。坐臥於塚墓之傍'精神自散。

오래 앉아있으면 육(肉)이 상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기(氣)가 상한다. 앉아있을 때는 태양을 등지지 말아야 하고, 바람이 불거나 습한 곳에 앉으면 5로(五勞)를 이룬다. 무덤의 곁에 앉거나 누우면 정신이 저절로 흐트러진다.

○書云, 臥出而風吹之, 血凝於膚爲痺, 凝於脈爲血行不利, 凝於足爲厥。

야외에 누워서 바람을 쐬면 피부에 혈액이 응결되어 마비되고, 경맥(經脈)에 응결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며 발에 응결되면 다리가 짧게 된다.①

○書云, 燭燈而臥, 神鬼不安。臥宜側身屈膝, 不損心氣。覺宜舒展, 精神不散。舒臥招邪魅。孔子云, 寢不尸。

등불·촛불을 켜놓고 자면 신혼(神魂)이 불안하다. 잘 때는 옆으로 누워 한쪽 무릎을 굽혀야만 심기(心氣)가 손상되지 않는다. ② 잠에서 깨어나면 서서히 일어서서 팔다리를 펴야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팔다리를 펴고 편히 누우면 삿된 도깨비를 부르게 된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체처럼 누워 자지 말라."

○書云, 寢不得言語。五臟如懸磬不懸, 不可發聲。孔子云, 寢不言。

누워서 말하지 말라. 5장(五臟)은 본시 석경(石磬 ③)처럼 매달려있는데 누워있을 때는 매달려있지 않으니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누워서 말하지 말라."

○書云, 臥勿以脚懸踏高處, 久成腎水虛損足冷。

누운 채 발을 높은 곳에 올려놓지 말라. 오래 행하면 신장(腎臟)의 수기(水氣)가 허손(虛損)되어 발이 차가와진다.

○書云, 臥不可戲, 將筆墨畵其面, 魂不歸體。

누워서 잠자는 사람의 얼굴에 장난삼아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 말라. 자는 사람의 혼(魂)이 몸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 書云, 臥魘不語, 是魂魄外游爲邪所執。宜暗喚, 忌以火照, 照則神魂不入, 乃至死於燈前。魘者本由明出, 不忌火, 並不宜近喚及急喚, 亦恐失伸魂也。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려 의식은 있으나 깨어날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혼백(魂魄)이 몸 밖으로 돌아다니는 틈에 사기(邪氣)가 침입한 것이다. 마땅히 조용히 말하며 흔들어 깨어야 얼굴에 등불을 비추면 혼백이 불빛을 싫어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여 등불 앞에서 죽게 된다. 가위눌린 자는 병의 원인이 밝음을 좋아하여 등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작은 소리든 큰 소리든 소리로써 깨우려다가는 혼백을 잃는 수가 있다.

○ 書云, 臥處頭邊, 勿安火爐。日久引火氣頭重, 目赤, 鼻乾, 發腦癰, 瘡癤。

누워서 머리 있는 곳의 주변에 화로를 두지 말라. 여러 날 동안 지내면 화기(火氣)가 머리로 침입하여 머리가 무겁고 눈은 충혈 되고 코는 마르고 뇌 안이 곪게 되고 온몸에 부스럼과 종기가 생긴다. ④

○書云, 臥習閉口, 氣不矢'邪不入。若張口, 久成消渴, 矢血色。又夜臥勿覆頭, 得長壽。濯足而臥, 四肢無冷病。又醉臥當風, 使人發瘖。醉臥黍穰中, 發瘡, 患大風, 眉墮°又雷鳴時仰臥, 星月下偰臥, 當風中醉臥, 以人扇之, 皆不可也。

잠잘 때는 입 다무는 습관을 지니면 기(氣)를 잃지 않고 사기(邪氣)가 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입을 벌리고 잠자는 버릇이 오래되면 당뇨병이 생겨 얼굴이 혈색을 잃는다. 또한 밤에 잠잘 때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지 않으면 장수한다. 발을 씻고서 누우면 팔다리가 차가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바람을 쐬면 목이 쉰다. 술에 취한 채 기장줄기의 사이에 누우면 악창(惡瘡)이 생기는데 악화되면 대풍창(大風瘡)⑤)이 되어 눈썹이 빠진다. 우레가 칠 때 누워있거나, 달'별이 뜬 밤에 나체로 누워있거나, 바람을 쐬거나, 술 취한 채 누워서 바람을 쐬는 것, 부채바람을 쐬는 것도 모두 불가하다.

○ 陶隱居云, 臥處須當傍虛歇, 烘熾衣衾, 常損人。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누워있는 곳의 곁은 반드시 별다른 물건이 없이 비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복·이부자리가 지나치게 따뜻하면 사람에게 해롭다."

○ 書云, 飽食卽臥, 久成氣病, 腰痛, 百疴不消, 成積聚。

배불리 먹은 즉시에 눕는 습관이 오래되면 기병(氣病)과 요통을 이룬다. 또한 온갖 고질병이 낫지 않으며 적취(積聚)를 이룬다. ⑥

○ 書云, 汗出不可露臥及浴, 使人身振, 寒熱, 風疹。

땀이 흐르는데 노천(露天)에 눕거나 목욕하면 몸이 떨리거나 한열(寒熱)이 있게 되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돋는다. ⑦

○ 書云, 坐臥處有隙風, 急避之。尤不宜體虛年老之人。有人三代不壽, 問彭祖。祖觀其寢處, 果有一穴, 當其腦户, 令塞之, 遂得壽盡。隙風入耳, 吹腦則陽氣散。頭者, 諸陽所聚, 以主生也。

앉거나 누워있는 곳에 틈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거든 급히 피하라. 이는 허약한 노인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다. ⑧

어떤 사람이 3대째 오래 살지 못하여 그 이유를 팽조(彭祖)에게 물었다. 팽조가 침실을 보니 잠자리에 누운 사람의 뇌호(腦户)에 해당되는 곳에 과연 한 구멍이 있길래 이를 막게 하니 이로 인하여 그는 제 수명이 다하도록 장수하였다. 틈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귀로 들어가 뇌를 침입하면 양기(陽氣)가 흩어진다. 머리는 제양(諸陽)이 모여서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註解

① 야외에 누워서 ~ 짧게 된다. :

어느 여름 날, 30代 여자가 내원하여 右下肢癱痺症을 호소하였다. 3일 간 針과 服藥治療를 해도 전혀 무효이길 레 물어 보았다. "매일 하루 종일 선풍기, 에어컨을 쐬시며 냉수샤워를 10번은 하시죠?" "어떻게 그걸 아시나요?" "오늘부터 선풍기에어컨을 전혀 쐬지 마시고 샤워는 온수로 한번만 하세요." 그녀는 그대로 실천하여 다음 날부터 대호전하여 치료받지 않고도 5일 만에 완쾌되었다. 역자는 이러한 예를 여러 번 겪었다.

② 잘 때는 옆으로 ~ 손상되지 않는다. : 道士 陳希夷(五代末 ~宋初)의 《睡功圖》도 그러하나 양손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左右 어느 쪽으로 누워도 무관하나 석가모니불은 우측으로만 누워 주무셨으며 우측으로 누워 涅槃에 드셨다고 한다.

③ 석경(石磬) : 正樂의 연주 때는 악기의 일종. 여러 개의 옥돌을 크기와 두께가 다르게 ㄱ자 모양의 板으로 깎아서 일렬로 매달아 놓고 쳐서 소리를 낸다.

④ 누워서 머리 있는 곳의 ~ 종기가 생긴다. : 인체의 건강은 水氣는 상승되고 火氣는 하강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水昇火降이 되지 못하여 생기는 질병의 대표적인 것이 두통, 불면, 고혈압, 비염, 眼充血, 顔面紅潮이다. 즉 肋膜以上의 心肺와 頭部는 차게 해야만 火降이 되는데 근래에는 가슴 윗부분이나 머리부근에 온풍기, 온열기가 있으니 이는 上焦疾患의 원인이 된다. 의료기관의 온열치료기도 가슴'머리부근에 시술해서는 안 된다.

⑤ 대풍창(大風瘡) : 原名은 大風이다. 《素問·長刺節論》에 의하면 骨節이 무겁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진다.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The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다⑥

법휘 스님 정토마을 영적돌봄가

"삶 소중함 알게 돼… 부처님 법 경험 계기"



2010년 운문사 강원 사집반이던 법휘 스님은 능행 스님의 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처음 죽음을 다시 바라봤다고 한다. 당시 스님은 이 교육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운문사를 졸업한 뒤 2013년 10월 정토마을에서 영적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호스피스 교육을 처음 받으면서 나와 너의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마음의 고통은 진실 되게 그것을 마주하고, 표현할 때 벗어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문사를 졸업할 무렵, 출가 수행자로서의 진로를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정토마을을 찾게 됐습니다."

상실의 아픔 앞에서 스님은 오히려 그들을 마음껏 그리워하면서 슬픔을 치유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임상을 통해 매일 떠난 분들을 축원하며 초를 밝히고 상실의 아픔을 사랑으로 채우는 방법을 터득했다. 이런 스님도 죽음 앞에 놓인 환자나 그들의 보호자를 만나러 가는 매 순간은 두렵다고 한다. 그들의 고통과 죽음 앞에 한없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그들의 영적 고통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고통을 겪는 가족들의 좌절감은 저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우리의 괴로움은 나라고 믿는 존재로 인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임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고귀하게 안내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부터 온전하게 존재해야 하고, 그대로의 저를 수용하고 사랑하면서 분별과 판단 없는 마음이 돼야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영적돌봄가 활동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병상에 가는 일이 설렌다고 한다. 어느 순간보다 가장 고귀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 삶을 마무리하는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스님은 "앞으로 수행자의 길을 가면서 이처럼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말기질환 환자 및 가족들의 생명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불교 호스피스 단체로서 2009년 창립됐다. 각 지역·지부 불교호스피스 활동을 총괄하며 조계종 승려연수 일환으로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1기를 모집 중이다.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불교호스피스 영적돌봄'

승려연수 30점 인증

①임상과 수행의 만남 ②환자의 심리와 욕구 ③영적 대화기법 ④죽음 현상들에 대한 직관 ⑤임종간호와 영적돌봄의 실제 ⑥불교의 생사관과 정토신앙 ⑦불교적 임종의식과 입관의식 ⑧임종시점에서 西歸直指의 방법론

- **교 육 비** | 25만원(법납 10년 미만 및 학인스님 5만원 감면)
- **접수문의** | 052)255-8522, 8524, 8530 / www.kbha.kr